

광주 시페퍼스 “컵대회서 일본 전훈 성과 보여주겠다”



13일 순천 개막 도드람컵 프로배구대회 첫 출전 김형실 감독 “선수들 정신편향... 눈빛 달라져”

광주 페퍼저축은행 여자배구단 시페퍼스가 2022 순천·도드람컵 프로배구대회에 첫 출전한다. 시페퍼스는 한국배구연맹(KOVO)이 13일부터 28일까지 총 16일 동안 순천시 팔마체육관에서 개최하는 이 대회에 참가한다. 시페퍼스로서는 창단 이래 첫 출전이다.

정규시즌 개막을 앞두고 각 팀의 전력을 최종 점검하기 위해 열리는 프로배구대회는 2019년 이후 3년 만에 순천에서 다시 열린다.

13일부터 시작하는 여자부는 A조 흥국생명, IBK기업은행, GS칼텍스 등 3개 팀이 경쟁하고, B조 페퍼저축은행, 한국도로공사, 현대건설, KGC 인삼공사가 겨룬다.

당초 여자부에 출전할 예정이던 일본 초청팀 히마시쓰 스프링스는 팀 내 코로나19 집단 감염으로

출전을 포기했다.

여자부 일정이 끝난 뒤 21일 남자부가 시작하며, V리그 소속 7개 팀과 국군체육부대(상무) 등 8개 팀이 A조와 B조로 나눠 경쟁한다.

시페퍼스는 정규시즌 개막을 앞두고 각 팀의 전력을 최종 점검하기 위해 열리는 이번 대회에서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각오로 나선다.

시페퍼스는 그동안 ‘토탈 배구’를 구현하기 위해 탐금질해왔다. 탄탄한 기본기를 바탕으로, 에이스는 없지만 전원이 공격에 가담하는 배구를 코트에서 선보이겠다는 것이다.

실제 시페퍼스는 지난달 전지훈련을 통해 전력을 가다듬었다. 일본 V리그 소속팀 NEC레드 로켓츠의 구단 배려로, NEC의 훈련장인 NEC아레나에서 히로타 아이 등 선수들과 함께 훈련했다.

NEC를 포함해 사이타마 아게오 메디스, 히타치 리바레 등 일본팀과 연습경기를 가지며 실전 감각을 끌어올렸다.

김형실 감독은 “선수들이 일본 배구를 몸소 체험해보면서 정신적인 부분이 향상된 것이 고무적이다. 특히 배구를 대하는 눈빛이 달라졌다”면서 “KOVO컵에서 광주시민과 팬들에게 일본 전지훈련의 효과를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KOVO는 배구와 축제를 합친 ‘V-FESTA’를 대회 콘셉트로 정하고 3년 만의 유관 중 대회를 축제의 장으로 만들 방침이다.

경기장 밖에서는 컵대회 기념사전을 남길 수 있는 포토존과 야외 팝 컨셉의 푸드 존이 설치된다. 토스로 과녁에 공 집어넣기, 스파이크로 과녁 맞히기 등 남녀노소 모두 쉽게 배구를 체험할 수 있는 플레이존도 마련된다.

장내에서도 팬들이 직접 참여해 1점 배구를 펼치는 팀 단체 코트 이벤트를 비롯해 다양한 이벤트가 이어진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김형실 시페퍼스 감독이 지난달 일본 도쿄에서 진행한 전지훈련에서 선수들에게 넷플레이를 지도하고 있다. (시페퍼스 제공)

오버 넷도 비디오 판독...새 배구 규칙 적용

13일 개막하는 2022 순천·도드람컵 프로배구대회에 오버 넷을 비디오 판독 대상에 추가하는 등의 새로운 경기 규칙이 적용된다.

한국배구연맹(KOVO)은 8일 “2022 순천·도드람컵 프로배구대회에 지난 2021-2022 정규시즌을 거치며 보완·변경된 경기 규칙이 시범적으로 적용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비디오 판독과 관련한 새롭게 제정된 다수 규칙이 이번 대회에 시범 적용된다.

가장 눈에 띄는 새 규칙은 비디오판독 대상에 오버 넷을 추가하기로 한 것이다.

오버 넷이란 블로킹을 제외하고 선수가 볼을 접촉하는 순간 상대편 공간으로 손이 넷 수직면을 침범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블로킹과 공격행위는 백스윙 여부로 판단한다.

연맹은 오버 넷 판정과 관련해 넷 한가운데 수직면을 활용한 중계화면으로 판독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이번 대회에선 모든 비디오 판독에 대해 추가 판독을 진행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인아웃과 터치아웃에 대해서만 추가 판독을 시행했지만, 추가 판독을 확대해야 한다는 여론에 따라 관련 규칙을 개정했다.

추가 판독 확대 시행은 주심요청 비디오 판독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항상 논란이 됐던 비디오 판독 요청 수용 시점도 명확히 한다. 랠리가 종료된 이후 A팀이 선수 교대를 신청한 뒤 B팀에서 판독을 요청하는 경우, 기록원이 선수 교대 완료를 뜻하는 사인을 보내기 전까지는 판독 요청을 수용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정해영도 말소...위기의 KIA

우측 어깨 염증 휴식에 필승조 해체...김도현도 엔트리서 빠져

KIA 타이거즈의 필승조가 해체됐다. 마무리 정해영도 미세한 어깨 염증으로 휴식에 들어간다.

KIA가 11일 우완 정해영과 김도현을 엔트리에서 말소하고, 우완 김재열과 좌완 김정빈을 등록했다.

최근 부진에 시달리고 있는 정해영은 심각한 상황은 아니지만 우측 어깨 염증까지 생기면서 잠시 쉬어가기로 했다. 정해영은 10일에서 2주 정도 휴식을 취할 예정이다.

지난 7월 29일과 31일 각각 장현식과 전상현이 오른쪽 팔꿈치 통증으로 엔트리에서 빠졌고, 마무리 정해영까지 재활조가 되면서 올 시즌 KIA 전력의 큰 축으로 꼽혔던 필승조가 해체 상태가 됐다.

KIA는 최근 ‘뒷문 싸움’에서 약점을 노출하면서 최악의 8월을 보내고 있다.

장현식, 전상현이 빠진 뒤 김중국 감독은 필승조로 박준표와 한승혁을 주목했지만 결과는 좋지 못했다.

박준표는 8월 3경기에 나와 1이닝 4피안타 3사구 5실점, 평균자책점 45.00으로 부진했다. 팔꿈치 뺏조각 제거 수술 이후 복귀 시즌을 보내고 있지만 아직 예전의 위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한승혁은 8월 4경기에서 3.2이닝을 소화하면서 1실점을 기록 2.45로 평균자책점은 나쁘지 않다.

하지만 고질적인 제구 난조로 내용이 좋지 못하다. 한승혁은 4경기에서 4피안타 6사구를 기록하면서 매 경기 주자를 내보냈다.

10회 5-4 끝내기 승리가 기록된 8월 7일 두산전에서 승리투수는 됐지만 9회말 1사 만루에서 나

와 밀어내기 볼넷을 내줬다. 패전 투수가 된 8월 10일 삼성전에서는 연장 10회 출격해 우전 안타와 몸에 맞는 볼로 아웃카운트 하나도 처리하지 못하고 강판됐다.

두 사람을 활용한 전력 극대화에 실패하면서 또 화력을 충분히 살리지 못하면서 KIA는 매 경기 어려운 싸움을 하고 있다. 이런 상황 탓에 불펜은 ‘극과 극’을 달리고 있다.

좌완 이준영과 사이드암 윤중현은 어깨가 무겁다. 이준영은 KIA가 치른 8월 7경기 중 5경기에 등판, 4.1이닝을 소화했다. 윤중현도 4경기에 나와 4이닝을 책임졌다.

하지만 이날 정해영과 함께 엔트리에서 말소된 김도현은 엔트리에 재등록된 7월 29일 등판 이후 8월 7경기에서 불펜만 지켰다. 역시 7월 31일 1군에 콜업된 유승철도 4일 한화전 1.1이닝 등판에 그치고 있다.

앞서 선 놀린과 토마스 파노니가 각각 8이닝 무실점, 7이닝 2실점으로 선발 싸움을 해줬지만 9회 초 4점의 리드를 지키지 못하고 뒷맛이 개운치 못한 끝내기 승리와 의문이 남은 끝내기 패배가 기록됐다.

100경기를 눈앞에 두고 있는 김중국 감독과 마운드를 책임지고 있는 서재우 투수 코치가 8월 위기를 어떻게 넘길지가 새로운 관전포인트가 됐다.

한편 11일 대구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KIA와 삼성의 시즌 11차전은 비로 취소됐다. KIA와 삼성은 12일 각각 양현종과 원태인을 선발로 내세워 경기를 펼칠 예정이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광주FC ‘브라질 트리오’ 앞세워 4연승 노린다

13일 K리그2 안산 원정경기

‘브라질 트리오’를 앞세운 광주FC가 4연승을 노린다.

광주는 오는 13일 오후 8시 안산와스타디움에서 안산그리너스를 상대로 K리그2 32라운드 원정 경기에 나선다.

1위 독주를 이어가고 있는 광주의 4연승 도전이다. 광주는 지난 라운드 충남아산과의 원정경기에서 산드로와 마이키의 골로 2-0 승리를 만들었다. 3연승에 성공한 광주는 승점 61점을 만들면서 ‘승점 60’ 고지에 선착했다.

2위 부천FC와 3위 FC 안양이 승점 48로 13점 차 밖에 있고, 4위 대전하나시티즌(승점 47)과는 14점 차.

광주는 ‘브라질 트리오’의 매서워진 발로 3연승을 달리며 7경기 연속 무패를 이뤘다.

산드로의 골이 반갑다. 이정호 감독이 “급이 다른 선수다”며 기대감을 보였던 산드로가 마침내 지난 원정경기에서 K리그 데뷔골을 만들었다.

헤이스와 마이키도 이날 두 번째 골을 합작하는 등 광주는 외국인 선수들의 상승세 속에 조기 우승을 위한 행보에 속도를 내게 됐다.

중원과 수비 조직력도 광주의 큰 힘이다.

이순민과 정호연은 공수 연결고리 역할을 하면서 광주 질주를 돕고 있다. 또 끝내기 김경민을 중심으로 한 수비진은 최근 3경기 무실점 행진을 하면서 완벽한 승리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번 안산 원정에서 수비의 한 축인 김재봉이 경고 누적으로 결장하지만 안영규, 아론, 김현훈, 박한빈 등 센터백 라인의 옵션이 다양하다.

광주가 4연승 제물로 삼은 안산은 6승 9무 14패로 리그 9위에 자리하고 있다. 하위권에 처져있지



광주FC가 ‘브라질 트리오’를 앞세워 13일 안산그리너스를 상대로 4연승에 도전한다. 사진은 산드로(왼쪽)가 지난 7일 충남 아산과의 원정경기에서 골을 넣은 뒤 기뻐하는 모습. (광주FC 제공)

만 끈끈한 수비 조직력과 강한 압박이 강점이다. 두아르테, 티아고, 최건주, 아스나위 등 ‘한방’ 있는 선수들도 있는 만큼 역습에 주의해야 한다.

역대 전적에서 광주는 안산에 5승 2무 3패로 우위를 기록하고 있다. 올 시즌 두 번의 맞대결에서도 모두 광주가 승리를 가져왔다.

전남드래곤즈는 13일 오후 6시 안방에서 14경기 연속 무승 고리 끊기에 나선다.

상대는 마지막 승리의 기억이 있는 FC안양이다. 전남은 지난 16라운드 안양과의 홈경기에서 김태현과 이준민의 연속골로 2-0승리를 거뒀다. 이 승리가 전남이 ‘무승의 늪’에 빠지기 전에 기록한 마지막 승전보다.

전남은 이후 14경기에서 7무 7패에 그치고 있다. 앞선 부천FC와의 31라운드 홈경기에서도 후반 19분 나온 임찬울의 골로 리드를 잡았지만, 후반 40분 프리킥 상황에서 넣은 주니에게 동점골을 허용하면서 경기가 1-1 무승부로 끝났다.

무승 고리를 끊지 못했지만 5경기 만에 임찬울이 골맛을 본 것은 반갑다.

또 이날 ‘수문장’ 김다솔의 예상치 못한 부상에도 수비수 최정원이 골키퍼로 변신해 ‘깜짝 선방’을 선보이면서 박수를 받기도 했다.

승리에 목마른 전남이 안양전 기억을 살려 15경기 만에 승전고를 울릴 수 있을지 광양축구전용구장에 눈길이 쏠린다. /김여울 기자 wool@

LOTTE CINEMA | 총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한산: 용의 출현
2관	한산: 용의 출현
3관	한산: 용의 출현, 극장판 살아남기 시리즈: 인체에서 살아남기
4관	비상선언
5관	헌트
6관	비상선언, 바다 탐험대 옥토포: 탐험선 대작전
9관	헌트
7관 씨네클립	비상선언, DC 리그 오브 슈퍼-팻, 미니언즈2, 외계+인 1부, 명탐정 코난: 할로윈의 신부
8관 씨네클립	헌트, 탐관: 매버릭, 명탐정 코난: 할로윈의 신부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광주시립합창단 수시연주회
오늘송과 함께하는 합창의 밤
일시 : 2022.08.23.(화)
장소 : 북구문화센터
문의 : 062-415-5203

광주국악상설공연
일시 : 2022.08.02.(화)~31.(수)
매주 화요일 ~ 일요일
장소 : 광주 공연마루
문의 : 062-613-8379, 8372

문화산책

즐거움